

# 經濟思想과 經濟理論

## —그 歷史的 相關關係—

申 泰 煥\*

<目 次>

- I. 머리 말
- II. 네가지 科學革命
- III. 現代經濟學의 特徵과 難點

### I. 머리 말

돌이켜 생각해 보면 經濟學은 400년에 걸친 歷史가운데 여러차례 世界觀이나 關心事, 파  
라다임의 변천을 거쳐왔다. 앞으로도 經濟學은 새로운 革命을 맞이할 것이다. 실제 그 동안  
經濟理論의 危機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學者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물  
론 그 危機라는 것의 性質이나 범위는 학자들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異論이 있는 가운데 改革主義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  
하기에는 시간이 지나가면 知的 探求라는 것이 그 正道를 벗어나는 수가 많다. 經濟學 知  
識의 本源이 요사이 와서는 상당히 不分明해지고 있다. 經濟理論의 危機가 발생하고 있다  
고 하는 것은 오늘의 經濟學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概念, 定理, 方法論이 異議의 對象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異論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經濟學이 확고한 科學이 되어  
가고 있다는 自慢心이 經濟學을 팽창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그 自慢心의 근원은 철저한 合  
理主義의 영향하에 생겨났다고 믿고 있다. 合理主義精神이라고 하는 것은 自然에 있어서의  
物理的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方法을 사용하면 人間社會의 모든 일을 包括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F.A. 하이에크는 이것을 科學主義라고 했다. 經濟  
學에 있어서 科學主義는 合理的 探究心の 肥大症을 가져왔다고 한다.

\* 前 學術院 院長

## II. 네가지 科學革命

過去 經濟學에 있어서는 네가지 科學革命이 있었다. 처음 經濟學은 17世紀 前半의 프랑 스官房學의 重商主義者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당시는 中世 基督教 教權支配가 강한 때라 經濟學이라는 것이 存在하지 않았다. 그러나 重商主義者들은 神의 秩序를 떠나서 經濟는 그 自體로 獨立하는 것이라고 하여 學問體系로서의 可能性을 제시하였다. 그 對象의 世界는 國王이 通貨의 鑄造나 外國貿易의 管理를 通해 支配하는 領域이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貿易黑字를 넘으로써 軍人에 支給하는 通貨를 入手하려고 한 것이다. 重商主義는 供給面에 注力했으나 黑字는 늘지않고 失敗했는데, 그것은 生産力과 資本形成에 失敗했기 때문이었 으며 대체로 그 經濟學的 性格은 매크로經濟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뒤의 重農主義는 價値의 源泉을 經濟적으로 보았을 때 人間의 生計를 지탱해 주는 土地라고 보았다. 個個人의 土地와 그 耕作者를 經濟의 基本單位로 하는 의미에서 마 이크로經濟學이었다. 神의 秩序나 王命의 秩序를 떠나서 自立的이고 自律的인 것이 經濟라고 봄으로써 經濟 그 자체가 하나의 學問이 되었다. 프랑스아 케네의 經濟表는 이것을 說明해 주고 있다.

그리고 古典學派 經濟學인데 그 創始者 아담 스미스는 人間이 市場에서 利己心을 追求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利益을 준다는 생각하기 어려운 명제를 導出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비유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宗教에서 보는 神秘主義的 信仰은 아니었다. 그는 市場이라는 混亂한 가운데 뜻하지 않은 秩序가 成立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世上은 이런 프로세스의 되풀이가운데 富強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장했고 이렇게 해서 商去來의 秩序가 物質의 進歩에 改善을 가져온다는 것을 史上最初로 생각해 냈다. 市場에 있어서의 人間의 行動과 經濟現象의 合理性에 關한 그의 分析뒤에는 心理學的 假定이 있었다. 즉 人間은 영혼보다 物質的 상태개선에 보다 많은 關心을 갖는다는 假定이다.

人間은 어디서나 合理的 行動을 하는 것이 아니고, 經濟的 經驗을 通해서 차차 自己經濟 行動을 調整하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생각한다. 需要가 줄면 價格은 내리고 增加하면 價格은 올라간다는 市場經濟의 機能을 하는 이른바 ‘經濟人’으로 그는 想定한다. 스미스가 想定한 資本主義的 經濟人은 어디까지나 市場에 있어서의 人間으로 想定된 것이지 그가 人間의 動機로서 利己心 自體를 찬양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스미스以後 現在까지의 經濟思想의 흐름속에서 經濟學者는 方法論적으로 經濟學

을 한층 엄밀한 分析科學으로 만들었다. 스미스의 後繼者들은 그간 自然科學이 成功해서 信  
 望을 얻은 것에 영향을 받아서 스미스의 立場을 넘어서 經濟的 世界的 客觀的 法則같은 것  
 을 說明하려고 했다. 그런 法則이 가장 完全히 表現되는 것은 엄밀한 數學的 表現形式을  
 취할 때이다. 그것에 비하면 스미스의 國富論은 보다 人文主義的이다. 그는 數學的 엄밀성  
 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市場이란 利己의 活動에 익숙한 우리 눈으로 보면 어떤 目的  
 意識을 가진 人間의 作用과 反作用이 나타나는 곳이다. 그런데 後述하는 바와 같이 그 以後  
 의 經濟學의 目標은 經濟世界로부터 目的을 가진 人間의 行動을 점차 排除하고 物理的 實  
 體의 抽象的 模型을 만드는 方法으로 이 經濟世界를 抽象模型로 바꾸어 놓았다. 多少의 公  
 理에 基礎를 둔 模型을 사용해서 우리가 사는 現實世界를 支配하는 法則을 導出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模型에 前提된 公理중의 하나는 經濟成長은 原理上 物理的 變化와 별로 다  
 름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經濟學的 觀點에서는 變化하는 世界를 描寫하는 一聯의 靜  
 學的 스냅寫眞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人間이 배우고 革新하고 經濟成長을 일으키는 動態  
 的 市場을 널리 익혀보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스미스가 무의식중에 分析한 經濟過程에 비  
 하면 經濟狀態分析이 中心이 되었다. 그래서 經濟學은 經濟世界를 支配하는 ‘冷酷的 法則’  
 을 發見하는 科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經濟學은 冷淡한 決定論的 世界이  
 고 人間向上心과는 無關하다는 것을 알리는 學問이 되었다.

古典派 經濟學은 쉽게 말해 重農主義와 같이 供給面에 關心을 두고 마이크로經濟學을 重  
 視했다. 그러나 價値의 理論은 自然에서 人間으로 變했고 그리고 勞動價値說은 富의 生産  
 을 說明하는 데에서 큰 業績을 넘으로 해서 古典派 經濟學은 成功할 수 있었다.

그런데 1870年 以後 멩거, 알라스, 제븐스 등의 限界革命이 있는 뒤에는 市場自體를 分析  
 하는 새롭고 복잡한 模型설정으로 方向을 바꾸었다. 멩거는 分析의 中心을 消費者로서의  
 個人的 欲求充足, 즉 效用에 둔 것이다. 그러나 效用이란 測定하기가 어렵다는 理由로 個  
 人·合理主義的 選擇을 支配하는 功利主義的 計算이 알라스, 파레토 등에 의해 完全競爭下  
 의 價格調整過程을 推進하는 關係分析으로 그 中心이 바뀌었다. 人間の 選擇行爲를 分析함  
 에 있어서 數學을 應用할 수 있어 行動一般을 說明하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經濟學은 稀  
 少資源의 合理的 配分問題로서 定義되고 經濟學者들은 ‘最大化’ 戰略을 提供하기 爲해 選擇  
 的 論理를 研究하게 되었다.

19世紀의 最後의 30年間에 主流經濟學은 큰 變化를 經驗했다. 1870年 존 스튜어트 밀의  
 經濟學原理로 代表된 古典學派가 懷疑와 反亂에 直面해왔다. 그들의 論理體系가 갖지는 않  
 으나 넓은 의미에서 共通點을 가지면서 다른 形態로 이마지한 新古典學派 經濟學이 일어

났다. 第1次大戰前은 各派가 各各 國際的인 成果를 받아들이지 않고 研究를 進行했다. 케임브릿지의 마샬, 스위스 로잔느의 왈라스, 그보다 좀 늦게 파레토, 오스트리아 빈의 멩거, 뱀 바베르크, 美國의 크라크 등은 넓은 의미에서 新古典學派 經濟學의 世界觀을 共有하고 있으면서 각각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었다. 新古典學派의 各種 潮流는 1次, 2次 大戰 사이에 國際間의 활발한 理論的 交流가 있어 自然히 合流를 하고, 2次大戰以後 英美系의 思想을 支配하는 思想體系가 되었다.

初期오스트리아學派의 主觀主義와 로잔느學派의 一般均衡體系는 마샬經濟學과 크라크經濟學과 結付되어 大西洋 兩側 諸國에서 現在 가르치고 있는 經濟學이 되었다. 新古典學派의 正統에 對한 케인지안의 공격은 現在로는 그리 革命的인 것이 못되는 것 같다. 케인지안의 매크로經濟學이 戰後 數十年동안 主役을 담당했는데 새뮤엘슨의 新古典學派 綜合으로 同化·吸收된 感이 없지 않다.

1870年 以後의 오스트리아學派는 消費者나 限界效用이나 市場의 需要側面의 役割을 認識하고 經濟學을 만들려고 했는데 마샬派와 왈라스派의 經濟理論은 主로 市場均衡의 條件을 明白히 하는 쪽으로만 置重했다. 그런 가운데 企業家의 役割이 없어지고 市場프로세스의 動態의 側面이 없어지고 그 위에 競爭의 役割이 變形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新古典學派 經濟學은 마샬의 經濟學의 潮流가 왈라스流의 經濟學의 重要한 特徵인 一般均衡理論의 傳統을 吸收·同化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現代經濟學이 資本主義를 市場프로세스로 보는 立場에서 決定的으로 離脫했다. 그렇게 해서 오스트리아學派의 當初 傳統은 完全히 없어지고 말았다. 1940年代 中半까지는 슈페터, 미제스, 하이에크 등 오스트리아學派의 사람들이 共有하고 있던 競爭의 프로세스에 對한 動態的 觀點이 主流의 그것과는 맞지 않았다. 1950年代 中半의 經濟學者들은 오스트리아派의 傳統과는 달리 치밀한 數學모델이나 計量經濟學의 手法으로 大大的인 實證研究計劃을 開發하는 데 熱中했다.

그렇게 해서 經濟學은 道德的 또는 政治的, 規範的인 것에서 手段的, 科學的인 것으로 移行했다.

1930年代 케인즈의 基本構想은 前의 諸學派와는 전혀 다르다. 케인즈의 獨創性은 賃金의 硬直性, 즉 失業이 만연해도 勞動의 價格이 쉽게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當時의 現實이고 貨幣와 信用이 利用되는 經濟에서는 企業家나 政策立案者가 價格信號를 잘 判斷하기 어렵고 그래서 全般的인 供給過剩이나 不況이 發生한다고 한 것이다. 케인즈는 매크로集計量으로 全般的 供給過剩을 설명하는 方法을 생각해 냈다. 傳統的 經濟學에 의하면 市場은 貨幣價格의 배일에 덮여 있을 뿐 本質的으로는 物物交換市場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

에 全般的 供給過剩은 理論的으로 있을 수 없는 現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매크로經濟學이라는 意味에서 重商主義를 모방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供給中心에서 需要中心으로 移行함으로써 經濟學의 立地를 完全히 바꾸었다. 그에 의하면 供給은 需要의 函數이고 需要 如何에 따라 左右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最大의 革新은 經濟의 現實을 새롭게 설명한 것이다. 케인즈의 經濟的 現實은 여지껏 財貨, 서어비스, 勞動 등 物理的 世界와 物財라는 現實이 아니고 通貨와 信用이라는 象徴에 의해 構成되는 것이다. 그는 通貨와 信用이 完全한 經濟的 支配力을 준다는 것을 最初로 明白히 했다. 즉 古典學派 經濟學은 重農主義者와 함께 貨幣를 '現實의 베일'이라고 본 것인데 비해 그는 物財中心의 經濟學을 象徴中心의 經濟學으로 바꾼 것이다.

### III. 現代經濟學의 特徵과 難點

오늘의 經濟學에는 그 樣相이 以上과 같이 整濟될 수 없는 복잡한 것이 있다. 오늘의 經濟學은 近代經濟學이나 그렇지 않으면 現代經濟學이나 하는 것이다. 하나의 思想體系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思考方式의 集合體같은 것이다. 여러가지 構成要素가 엉키어서 하나의 思想을 形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힘을 갖는다. 이런 思想은 社會發展의 結果로 나오는 것이고 또 社會發展의 原動力이 된다. 어쨌든 發想方法의 慣習이라든가 傾向, 독특한 分析用具 그리고 背後에 있는 政治哲學 등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사람들의 行動에 영향을 줄만한 하나의 큰 全體를 形成할 때 우리는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思想이라고 한다. 오늘날 우리가 近代經濟學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도 後日 하나의 思想으로 남을 것이다.

第2次 大戰後의 이런 現代經濟學의 分析의 成果는 가장 注目할 만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典型的인 分析體系를 만들어 냈고 그것은 어느 程度의 實用的 意義를 갖게 된 것이다. 1870年代의 限界革命 以後의 經濟理論을 近代經濟學이라고 부르지만 요사이 널리 應用되고 있는 近代經濟學의 실제 內容은 1930年代 以後 成立된 것이다. 1930年代가 갖는 意義는 決定的이다. 그런 意味에서 近代經濟學은 現代經濟學이라고 불려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 歐美各國의 統一된 學派라고 할 수 있다.

現代經濟學의 發展에는 세가지 側面이 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해도 1950年代의 네가지 理論革新이 完遂된 점이다. 上述한 바와 같이 케인즈의 巨視的 分析(1936), 챔버린과 로빈슨의 不完全競爭의 理論(1933), 히스와 새뮤엘슨의 微視的 理論의 數學의 一般化(1934) 그리고 뒤르달과 로빈슨의 方法論的 皮구批判에서 시작되는 新厚生經濟學(1930~1980)이다.

이것들은 古典派以來的 經濟學의 難點에 對한 解決案이란 性格을 가지고 있고 經濟理論의 非약적 發展을 하는 準備가 이것들을 통해 整備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2次 大戰後의 現代經濟學은 演繹理論의 數學的 精密化에 큰 努力을 했다. 그 때문에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技術的이란 批判을 받고 있다. 그러나 演繹理論은 아무리 精密하다 하더라도 지나칠 것은 없다. 다만 演繹理論의 展開란 過誤를 犯하기 쉽기 때문에 이것을 防止하기 爲해서는 明確한 合理化가 필요하고 數學의 用具를 援用하는 것이 매우 有用하다.

社會科學이라고 하는 것은 實驗이 不可能하다는 것 그리고 其他事情으로 數 많은 關係를 同時에 考慮해야 하는데 數學的 도움없이 多元的 關係를 論理的으로 正確히 分析한다는 것은 人間의 能力을 초월하는 것이다. 第2次 大戰後의 經濟理論은 이 點에 對處하기위해 聯立方程式의 數學理論을 展開함으로써 發展했다. 그러나 演繹이 '歸納—演繹—檢證'이라는 科學을 構成하는 三工程의 하나의 마디에 不過하고 그 自體만으로는 科學的 成果를 바랄 수 없다. 演繹은 科學의 한 部分品이고 實證作業과의 協力없이는 科學的 成果를 얻어낼 수 없다. 現代經濟學은 演繹的 理論의 충실이라는 면에서 成功했지만 現代經濟學의 다음의 發展은 實證的 側面에 있다. 2次 大戰後 大規模 計量的 實證分析의 發展이 있었다. 1930年代부터의 統計資料의 系統的 蒐集이 各國政府에 의해 精力的으로 行해지고 유엔같은 國際機關도 積極 도왔고 특히 大型電算機의 出現으로 個別商品이나 個別產業의 實證分析을 위시해서 數百의 聯立方程式으로 된 매크로 에코노메트릭 모델이나 數百으로 된 聯關모델에 의해 國民經濟의 實態를 把握하게 되었다. 물론 이런 大規模의 計量的 分析이 演繹理論의 展開를 받아들여 가지고 했는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政策應用의 側面이다. 理論과 檢證面에서 發展을 보인 經濟分析이 單純히 學問的 成果의 蓄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政策決定에 應用된 것이 大戰後의 큰 특징이다. 經濟學者의 發言 뿐 아니라 官僚를 包含한 政策決定構造가 現代經濟學의 手法을 서슴치 않고 쓰고 있다. 經濟白晝라든가 經濟開發計劃이 그 좋은 예로 現代經濟學은 官廳經濟學으로 행세하게 되었다. 그래서 政府가 介入함으로써 政策立案이 高度化되고 經濟分析의 實證的 發展을 자극하고 필요한 統計蒐集을 促進했다.

그러나 現代經濟學의 演繹理論의 엄격성은 높으나 그것만으로는 단순한 知的 유희에 不過한 것이다. 그러니까 精밀한 演繹理論, 大規模 實證分析 그리고 實際문제에의 응용, 이런 세가지가 관련을 가지고 나갈 때 現代經濟學의 科學으로서 理想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現代經濟學에 對한 批判의 소리는 날이 갈수록 높다. 現代經濟學은 그 高度의 엄

밀정때문에 쓸데없는 技術的 閉鎖主義로 흐르게 되었고 결국 實體라는 것을 外面하려는 僞裝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批判을 받고 있다. 즉, 그 政策의 應用이 有效하다는 것 때문에 經濟機構의 缺陷이 미봉되고 體制의 缺陷이 가려진다고 酷評을 한다.

經濟的 現象의 世界가 他現象으로부터 獨立하고 自己完結의인 世界를 構成한다고 하는 近代經濟學 以來的 孤立的 假定은 經濟的인 現象이 가장 기초적 現象으로 그 외의 政治・社會的 現象을 決定하는 것이고 그것에서 決定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지닌다. 人間의 行動을 決定하는 여러가지 要因 가운데 經濟的인 것이 우월한 要因이고 人間은 기본적으로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것이다. 이런 假定은 現代經濟學의 특징적 假定이다. 이런 假定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經濟分析의 結果가 다른 要因에 依存하는 것이 되므로 매우 不安定한 것이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經濟分析이 演繹的인 것은 되어도 實證分析은 될 수 없다.

다음에는 方法論的으로 個別主義라는 것이다. 모든 現象은 궁극적으로는 個別單位의 움직임의 總和로 포착할 수 있다는 假定이다. 全體는 全體로서 파악하는 것이고 個別로 分解된다고 하면 本質을 喪失한다는 생각과는 다르다. 經濟學에 있어서는 消費者로서의 家計나 生産者로서의 企業이 있고 그것이 外的 狀況에 對해 一定한 反應 즉 滿足極大化나 利潤極大化를 向해 行動한다는 假定이다. 이런 反應이 그대로 全體로서의 總和가 되기 爲해서는 完全競爭의 假定이 필요하다. 그래서 人間은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市場狀況 즉 價格에 對해 完全히 受動的이고 獨立해서 反應해야 한다는 것이다. 少數有力한 企業에 依해 形成되는 市場 즉 寡占市場에서는 完全競爭의 假定이 成立하지 않는다. 그 경우 市場의 參加者가 서로 다른 사람의 行動을 추측하는 게임論이 되고 結論의 確定性이 없게 된다.

그리고 다음에 定量性이다. 現代經濟學에 있어서는 모든 變化가 財貨의 數量과 價格이라는 形態를 통해 定量的으로 表現된다. 이 定量性 때문에 數學이 應用될 수 있고 檢證하는 手續도 明確하게 된다.

科學理論을 構成하는 命題의 集合은 經驗에 依하여 檢定되는 것이어야 한다. 檢證이 不可能한 命題는 科學性이 없고 臆測에 不過한 것이라고 본다. 이것이 分析的 方法의 基本態度다. 그러나 檢證可能性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理論의 出發點을 構成하는 基本的 命題群을 公理라고 부른다고 하면 公理란 많은 경우에 ‘어떤 事例에도 成立한다’는 論理上 全稱命題의 形態를 取한다. 그러나 종래보다 많은 事例에 成立했다고 해서 全部를 肯定的으로 保證하는 것은 아니다.

經濟分析의 實證에 있어서 가끔 完全競爭이란 理想狀態가 假定되는데 그 假定下에서 檢

定되는 法則보다는 完全競爭의 假定편이 不確實할 수가 있다. 그런데 完全競爭의 有無를 市場에 있어서의 經濟現象을 獨立시켜 檢定하기는 不可能하다. 그래서 完全競爭과 結付된 經濟法則의 檢證은 어렵다. 그래서 現代經濟學은 演繹面에서 發展했으나 檢證面에서는 充分한 實績을 못냈다. 社會科學에 있어서의 檢證이 어렵다. 그러나 檢證이 안된다고 理論을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檢證이 어려우면 假定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런 努力을 잘 하지 않는다. 여기 假定硬直性을 볼 수 있고 理論이 形式化되고 演繹만으로 버티는 危險이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現代經濟學에 對한 批判은 制度的 要因의 考慮가 不足하다는 것이다. 또는 人間과 物財의 關係를 分析하나 人間과 人間の 關係는 分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에 制度的 變化에 關한 理論과 人間과 人間の 關係를 經濟理論에 집어 넣어야 하는데 그것은 高次元의 理論으로 이미 經濟理論은 아니다.

分析的 科學方法論에 있어서는 理論과 實踐의 分離, 事實判斷과 價値判斷의 區別이 強調된다. 사람들의 意欲과 價値가 事實判斷의 形式을 취하는 分析的 結論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事實判斷에서 價値判斷이 어떻게 誘導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이다. 事實判斷(...이다)에서 價値判斷(...이어야 한다)이 나올 수는 없다. 그런데 보통 科學分析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事實判斷으로 되어 있고 規範分析은 實證分析의 結果를 利用해서 行해지는 科學의 應用이고 엄밀히는 科學 바로 그것은 아니다. 한편 規範的 分析은 目的에 對한 手段으로 選擇하는 分析이고 目的으로서 어떤 價値判斷을 擇하느냐는 自由다. 現代經濟學에 있어서 規範的 分析은 厚生經濟學이라고 불리우고 事實上 강한 功利主義의 歷史傳統의 範圍에서 目的을 設定해 왔다. 功利主義의 第一의 前提는 各個人의 價値는 그 個人의 欲望의 充足에 依해 決定된다는 것이다. 哲學上 快樂主義의 假定이다. 다음 前提는 社會의 價値는 모든 個人의 價値에 依하여 決定된다는 假定이다. 이런 功利主義의 構造는 英國의 支配的 政治思想이다. 그렇게 해서 厚生經濟學은 各個人의 欲望充足의 函數로서의 社會價値 즉 社會의 厚生이라고 부르는 것의 極大化를 目的으로 하고 그 때문에 手段을 選擇하는 規範的 分析이라고 할 수 있다.

戰後의 現代經濟學은 演繹, 實證, 政策에의 應用 등 三面에서 크게 發展했다. 1930年 以來 力學어나로지로 整備된 理論이 成果를 냈다. 그런데 特殊한 前提인 完全競爭때문에 이제는 演繹理論의 뜻이 없어지고 現實에 不適當하다고 批判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演繹과 實證사이에 不均衡이 심했다는 것이다. 確實히 現代經濟學에 있어서의 成果는 量的으로 均等해 보이나 그 방대한 實證作業은 演繹理論의 一部에 關한 것이고 完全競爭이나 寡占競爭등의 假定을 包含하는 마이크로理論은 檢證을 받지 않은 演繹體系로 남아 있다.



今後的 現代經濟學은 力學的 構造를 지켜온 諸前提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보다 現實인 假定을 向해 지금까지의 檢定作業을 그 理論의 全面에 걸쳐 推進할 것이다. 또는 現在의 理論構造를 지키면서 成果를 내기쉬운 側面에 힘을 集中할 것이 아닌가 한다. 規範分析에 있어서도 自由로운 價値判斷의 選擇이 필요하게 될 것이나 現事情으로는 現代經濟學이 여지껏 試圖하지 않던 스타일의 規範分析을 할 것이 아닌가 한다.

以上 現代經濟學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것에 대한 批判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結局 앞으로 現代經濟學이 어디로 가느냐를 진단하기 爲한 것이었다. 過去 15年間 經濟理論이 짜낸 政策을 보면 經濟理論의 力不足이 明白하다. 그 때문에 經濟學者들 사이에 意見의 差異가 자꾸만 생겨나고 있다. 그 中에도 新오스트리아學派, 포스트 케인지안, 마니타리스트 그리고 래디칼 에코노미스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大體로 上述한 現代經濟學 批判線上에서 來日의 經濟學을 꿈꾸고 自體理論을 擴大해 나가고 있다. 이들에 關한 상세한 얘기는 다른 機會로 미루고 時間關係上 이만 줄인다.

### 參 考 文 獻

- Daniel Bell and Irving Kristol, *The Crisis in Economic Theory*, Basic Books, Inc. Publishers, New York, 1981.
- Dyke, C., *Philosophy of Economics*, Prentice-Hall, New Jersey, 1981.
- Hahn, F. and Hollis, M., *Philosophy and Economic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Kenneth E. Boulding, *Economics as A Science*, McGraw-Hill, New York, 1970.
- Kurt Dopfer and Others, *Economics in the Future*, Westview Press, Colorado, 1976.